

전국 문학인 광주에

15일 '문화 속의 문학' 세미나

광주시 등 전국 6대 광역시와 제주도의 문학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광주시민문인협회(회장 함수남)는 오는 15일부터 1박2일 동안 광주시 동구 불로동 히딩크호텔에서 '문화 속의 문학'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이 행사는 지난 1993년부터 6대 광역시와 제주도 등 각 도시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첫 날 세미나에서는 백수인(조선대 교수) 시인이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있어서 문학의 위상'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하고, 각 시·도에서 참석한 문인들이 토론을 벌인다. 세미나 후에는 시와 수필 낭송, 판소리 등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둘째 날 참가자들은 사직공원 박봉우·이수복·김영랑 시비, 호남신학대학 김현승 시비, 소쇄원, 석영정, 가사문화관 등의 코스로 남도문화 탐방을 하게 된다. 문의 062-227-0811.

<정성풀기자 camus@kwangju.co.kr>



7인 7색의 어울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기획공연

11~14일 오영미씨 피리 공연 등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단장 이태백)이 기획한 '7인 7색의 어울림'이 11~14일 오후 7시 광주문화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관현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7명의 연주자가 독주회 형식으로 무대를 꾸며 대체로 운을 악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11일에는 가야금 주자 김성이, 타악주자 김용석씨가 무대를 꾸민다. 김성이씨는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25현 가야금 곡 '벳노래' 등을 들려주며 김용석씨는 승무 북가락, 얇은 무설장구 등을 선사한다. 12일에는 해금 주자 이현신과 거문고 주자 유소희가 무대를 꾸민다. 연주곡목은 피아노와 어우러진 지향곡류 해금산조, '나의 꿈을 향해 가는 길' 등이다.

13일에는 김형석(대금), 오영미(피리)씨의 무대가 이어진다. 레퍼토리는 대금 협연을 위한 '벳노래', '상령산' 등이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이태백 단장의 아쟁 독주회가 열린다. 해설 김삼진, 티켓 가격 5천원. 문의 062-510-9342.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작품 반환·장기임대 공식 요청

국립현대미술관 대여심의위원회 거쳐 곧 결정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광주 일보사가 추진 중인 '오지호 유작 돌려받자' 캠페인을 공식 사업으로 체택,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오지호 선생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을 반환과 장기대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냄으로써 이 사업을 공식화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새 광주시립미술관에 오지호 화백의 유작을 상설전시하기 위해 작품반환과 장기임대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립현대미술관에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시립미술관은 한국 미술사를 개척한 오지호 선생의 유작을 광주에서 상설전시함으로써 광주 문화예술의 뿌리를 조명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립미술관은 공문을 통해 지난 85년 기증된 오지호 선생의 유작 34점이 광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지역민들의 여론을 전달했다.

특히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오는 9월로 예정된 광주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에 일부 작품을 임대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85년 오지호 선생의 유작들은 유작 34점을 기증하였다. 열악한 지방 재정 때문에 전시공간을 마련할 길이 없자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석우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처리팀장은 "개인적으로 오지호 선생의 작품이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지역민들의 정서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일단 공문이 접수된 만큼 작품 관리 규정 등 절차를 밟아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에는 '소장 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국립현대미술관이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작품의 장기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택 광주시립미술관장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오지호 화백의 작품을 광주 시민들이 향유할 '문화 공공재'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오는 9월 새로운 미술관이 개관하는 등 전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작품이 광주에 전시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판단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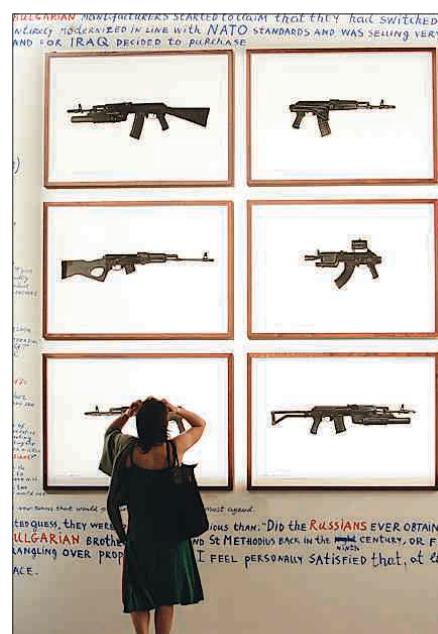
한편, 지난 85년 오지호 선생의 유작들은 유작 34점을 기증하였다. 열악한 지방 재정 때문에 전시공간을 마련할 길이 없자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이 '오지호 유작 돌려받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가 수장고에서 오지호 화백의 대표작 '처의 상'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불가리아 작가 네드코 솔라코프의 설치작품 'Discussion Property'를 한 관객들이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니스 비엔날레 전쟁·폭력 꾸짖다

실험성 보다 정치색 강해져... 7일 개막, 아프리카 등 3세계 미술 호평

“현대미술의 최첨단을 소개한다는 베니스 비엔날레 원래 취지는 빛이 바래고 정치적 색채만 짙어졌다.”

제52회를 맞은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를 바라보는 대체적인 평이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아르세나ле의 본전시와 차르디니의 국가관 전시가 언론에 하나 둘씩 공개되자 국내 미술계 인사들은 대체로 이렇게 평가했다.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사상 최초로 미국인이 총감독을 맡으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는 시각도 있다. 예일대 교수이자 유명한 미술평론가 겸 큐레이터인 로버트

스토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탈피해 과거의 미술이 현재의 미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루이즈 부르주아, 게르하르트 리히тер, 솔로워, 지그마르 폴케 등 생존 원로 거장들의 초·중년기 작품이 이탈리아관 일대에서 대규모로 전시됐다. 비엔날레 원래 취지에 맞게 본전시나 국가관 전시 모두 깊은 작가비중이 여전히 높았으나 극단적으로 실험

정신이 강조된 작품보다는 이미 상당히 정제된 작품이 대다수였다는 지적이 많다.

파격적인 영상이나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설치로 시장터처럼 관객몰이를 하는 이색

작품은 눈에 띠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아트페어장에 내놓아도 금방 주인을 찾을 수 있을 듯한 작품이 많다는 뜻이다.

또 총감독이 공약한 대로 신설되거나 보강된 아프리카관과 터키관, 레바논관 등은 일단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시아 작가로는 중국과 일본, 인도만 포함됐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 작가는 본전시에 끼지 못해 이 역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인 박신의 경희대 교수는 “이번 국가관 전시를 보고 국가관 전시가 경쟁체제에 돌입했다는 실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작품은 눈에 띠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아트페어장에 내놓아도 금방 주인을 찾을 수 있을 듯한 작품이 많다는 뜻이다.

또 총감독이 공약한 대로 신설되거나 보강된 아프리카관과 터키관, 레바논관 등은 일단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시아 작가로는 중국과 일본, 인도만 포함됐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 작가는 본전시에 끼지 못해 이 역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인 박신의 경희대 교수는 “이번 국가관 전시를 보고 국가관 전시가 경쟁체제에 돌입했다는 실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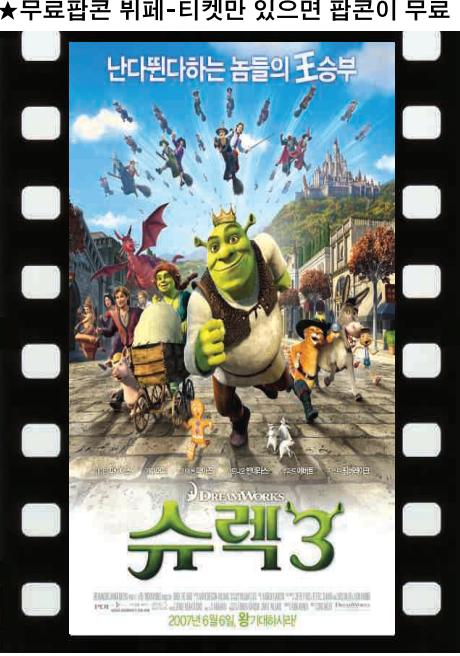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데가박스

구. 런던 약국사거리 ♥ 예매 1544-0600

1관 황진이 (15세) 최고급관
2관 슈렉3 (15세/한글자막)
3관 쉐리즈더맨 (12세)/황진이 (15세)
4관 밀양 (15세)
5관 슈렉3 (15세/한글자막)
6관 캐리비안의 해3: 세상의 끝에서 (12세)/상성 (18세)
7관 팩토리걸 (18세)/메신저-죽은자들... (15세)
8관 캐리비안의 해3: 세상의 끝에서 (12세)
9관 황진이 (15세)

5월 1일부터 매개티즌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 이프ュ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은 한정)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주차장이 편한 극장—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캐리비안의 해4 (12세)
2관 황진이 (15세)
3관 황진이 (15세)
4관 스파이더맨 3 (12세)
5관 캐리비안의 해4 (12세)
6관 못말리는 결혼 (15세)
7관 밀양 (15세)

금, 토(2일간) 십야상영

* 자주차 당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 매주 금·토 십야 2,000원 할인 *



횡성시립영화시청 * 예매: www.joycbc.com /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영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뒷편)

1관 슈렉3 (전체)
2관 [\[어린이전용관\]](#) 박물관이 살아있다 (전체)
3관 슈렉3 (전체) / 전설의 고향 (12세)
4관 슈렉3 (전체)
5관 스파이더맨 3 (12세) / 상성-상처받은 도시 (18세)
6관 밀양 (15세)
7관 캐리비안의 해-세상의 끝에서 (12세)
8관 황진이 (15세)
9관 캐리비안의 해-세상의 끝에서 (12세)
10관 황진이 (15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남점 (10개) 절친리 상영중

상영일연결 방법
-1번 or 2번 -> 0번

출거울이 가득 * www.mc12.co.kr /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메신저 (12세)
2관 밀양 (15세)
3관 슈렉3 (12세)
4관 슈렉3 (12세)
5관 황진이 (15세)
6관 캐리비안 해적 (12세) / 황진이 (15세)
7관 대스워터 (15세)
8관 상성-상처받은 도시 (18세) / 전설의 고향 (12세)
9관 캐리비안 해적 (12세)

* 리버사이드 출입 무등주차장 (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텁클레스 회원만 이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새로운 운동 * www.primuscinema.com / www.jeilcinema.co.kr *

제일 시네마

충장로 3가 ☎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슈렉3 (12세)
2관 메신저 (15세)
3관 슈렉3 (12세) / 캐리비안의 해적 3 (12세)
4관 황진이 (15세)
5관 캐리비안의 해적 3 (12세)
6관 밀양 (12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